

이 주의 투자 포인트 (9월 8일 주)

최근 고용 지표 악화로 9월 기준금리 0.25%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황임. 이제 초점은 단순한 인하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하 폭과 속도에 맞춰져 있으며, 이번 주 예정된 PPI와 CPI 발표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음.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만찬에서 빅테크의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연준 의장 후보군을 직접 거론하는 등 시장에 파급력 있는 메시지가 이어졌음. 또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보상을 통해 'AI/로보틱스/로보택시' 비전을 구체화했고, 이번 주에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자 행사에서 최신 전략이 공개될 예정임. 전반적으로 이번 주도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국면임.

1. 고용 악화 확인, 금리 인하 기대 선반영 중?

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

- 8월 비농업 고용은 2.2만 명 증가 (vs. 7.5만명) 와 실업률 4.3% 로 고용 둔화가 확인된 상황임. 이는 9월 16-17일(미국시간) FOMC 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움.
- 이번 주 발표되는 PPI(9월 10일)과 CPI(9월 11일) 인하 폭과 속도를 가를 마지막 데이터임.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이미 9월 0.25% 인하 여부는 시장 가격에 반영됨.
- 인하를 하더라도 1)추가 인하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없을 때, 2)예상 밖 금리 동결이 나왔을 때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함.
-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용 둔화와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 둔화 신호하는 점을 염두에 둘 것.

2. 트럼프의 빅테크 CEO 회동과 연준 의장 후보 3명 압축 발언

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

- 대통령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빅테크 CEO 만찬을 열어 AI와 반도체 투자 기조, 특히 미국 내 투자를 강조했고 이는 정책과 규제 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키운 상황임.
- 동시에 트럼프의 연준과 파월 의장 압박은 지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유력 "Top 3" 후보로 케빈 해시 NEC(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위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언급.
- 특히, 해시에 대해 "훌륭하고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고 평가함.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I 인프라, 클라우드, 반도체 쪽에 우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연준 독립성 논란은 채

권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인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임.

- 트럼프의 지속적인 정치적 개입과 연준 독립성 이슈 등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뉴스 일 수 있음.

3. 테슬라 보상안과 테크 업계 업데이트에 주목

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

- 테슬라 이사회가 지난 8월 일론 머스크에게 약 290억 달러 규모의 임시 주식 보상을 승인함에 이어 장기적으로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성과연동 보상안을 제안한 상황임. 11월 테슬라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 이는 테슬라의 AI/로보틱스/로보택시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는 “비전 가시화”. 동시에 지배구조와 리스크를 부각하는 이벤트임.
- 또한, 이번 주에는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자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실적 발표 후 AI 수요, 설비투자, 각 사의 가이드선과 최신화 된 전략 등이 연속적으로 기사화 될 가능성 높음.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이번 주 내에 빅테크의 다양한 뉴스를 소재삼아 단기적인 트레이딩 수요도 함께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
- 빅테크의 최신화 된 전략에 대한 투자자의 해석, 찬반이 갈린다면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와 배우자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